



6월9일
수요일

보 도 자 료



실과	축산정책과	과장	박도환	팀장	이두규	☎	286-6510
----	-------	----	-----	----	-----	---	----------

조사료 생산용 기계·장비 예산 60억 원 추가 확보!

- 전남도 적극노력, 트랙터 등 장비 부족난 해소로 고품질 조사료 생산 기대 -

- 전남도는 “국내산 조사료의 안정적인 생산·공급”을 위해 조사료 경영체에 기계·장비 구입 비용 6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‘21년 총 사업비 151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※ 지원현황 : (당초) 91억원 / 53세트 → (변경) 151억원 / 84세트(증 60, 31)

- 금번 추가 예산은 농식품부 조사료 국비 유보예산 변경 사용 제안 및 기계·장비 지원 방문 건의 등 지속적인 설득 노력으로 농식품부 유보액 국비 25억 원의 60%인 15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.

- 확보된 예산은 시·군의 추가지원 건의물량 및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순천시 등 13개 시·군에 배정하였으며,

- 시·군에서는 선정된 조사료경영체 중 법인 운영실적, 조사료 재배면적, 보관시설 확보, 보유장비 현황, 귀농인·청년창업 농업인 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별로 지원하게 된다.

- 지원자금의 용도는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, 결속기, 랩피복기 등을 수확면적 30ha 기준 일반단지는 1.5억 원, 전문단지는 3억 원 이내에서 조사료경영체에 지원하게 되며, 노후장비 교체는 5~8년(트랙터 8년, 기타장비 5년) 경과 한 후 지원 한다.

-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“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노후화된 기계·장비로 조사료 적기 수확·공급에 애로가 있었으나, 추가 예산 확보로 기계·장비 부족문제를 해소하게 되어 고품질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”고 말했다.